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오 영 옥

2015년 8월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지도교수 이 인 회

오 영 옥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오영옥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梁 鍾 健 

위 원 박 정 환 

위 원 이 인 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8월

【국문초록】

제주 성인문해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오 영 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이 인 회

‘문해’는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고등 교육을 받은 대다수는 대화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문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힘들다. 비문해자들은 타인과 협동하기를 꺼리며 학습하기를 피한다.

2001년 유엔총회에서 2003-2012년을 ‘유엔 문해 10년’으로 정하고 문해가 모든 어린이 · 청소년 · 성인의 기본 생활 기능을 익히는데 핵심요소이며, 기초교육은 21세기 효과적인 사회 · 경제 참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규정했다. 세계인 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수억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없으며,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해 능력이란 자아실현임과 동시에 사회 참여의 기본 수단이다. 문해 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며 인간 생활의 초석으로 인간의 성장, 사회 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기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규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 대한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해교육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문

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의 문헌 연구와 제주의 주요 3개 문해교육기관의 기관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문해학습자들은 적절한 학습교재의 개발과 교수-학습 방안, 반복학습의 기회 제공, 정규과목 수업 이외의 특별·체험 활동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 실현을 위해 문해교육기관 간의 정보교류 미흡,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예비성인문해학습자들의 접근성 부족, 정부기관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저해 요인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력인정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의 확대, 제주지역 문해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종사자 전문연수 등을 제주 전 지역의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2015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협의회의 제주도내 성인문해교육기관 네트워크 협력 추진이 제주 성인 문해교육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4.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문해교육의 개념	6
2. UNESCO의 문해교육	10
3.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	14
4. 제주 성인문해교육 현황	23
5. 선행연구 분석	28
III. 연구방법	31
1. 문헌 연구	31
2. 심층 면접	31
3. 자료 수집 및 분석	33
IV. 연구결과	35
1.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	35
2.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의 문제점	43
3. 제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51
V. 요약 및 결론	54
1. 요약	54

2. 결론	56
3. 제언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2
부록 1. 설문지	65

표 목차

<표 II-1> 문해의 영역	6
<표 II-2> 문해 수준 및 세부내용	7
<표 II-3> 국내 주요 성인문해 조사 내역	8
<표 II-4> 문해의 증거	9
<표 II-5> 전 세계 지역별 비문해율	12
<표 II-6> 세계 문해 현황	13
<표 II-7> 학력수준별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	16
<표 II-8> 성인학습자의 특성	17
<표 II-9> 12세 이상 문맹자 수(재건국민운동본부)	20
<표 II-10> 성인문해 대상자 지원 현황	22
<표 II-11> 다문화 가족의 유형	27
<표 III-1> 연구대상 성인문해교육기관	32
<표 III-2>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2
<표 III-3> 조사 항목 및 내용	33
<표 IV-1>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 실태	36
<표 IV-2> 제주 문해교육 예산 지원 현황	43
<표 IV-3> 기관별 홍보 방법	46
<표 IV-4> 기관별 특별 · 체험활동	5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재만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은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100세 시대에 배움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며 학습자가 성장하면 지역이 성장한다고 강연을 펼쳤다(한라일보, 2013. 12.). 이 날의 강연은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제주에 살고 있는 성인 중에는 기초교육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박탈 당한 채 배움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비문해자들이 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문해교원들은 비문해학습자들이 어린 시절에 다른 문해자들처럼 학습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문해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그들은 위의 신문보도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기초교육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행복지수가 낮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 몰래 운동을 가는 척하면서 평생학교에 등교하여 문해교원들과 평생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하고 다음 날 수업을 기대하며 하교한다. 이런 비문해학습자들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60세 전후 여성이며 결혼이주여성도 있다. 제주의 내국인들은 시대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기초교육 학습의 기회를 놓쳤지만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합류하게 된 또 다른 비문해자인 것이다. 이들 비문해자들은 대다수가 학습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초졸 이하가 5,527천 명이고, 중졸 이하는 3,424천 명이며, 그 가운데 50세 이상 연령의 비율이 전체의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무학의 경우에도 전체 1,595천 명이 추산되고 있으며, 남성은 306천 명, 여성은 1,287천 명으로 여성 무학자

의 수가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김주환, 2013).

2010년 현재 전국 중졸 미만 학력 인구가 20세 이상 인구 대비 15.7%로 약 577만 명이고, 제주도는 그 중 18.8%로 73,162명으로 나타났다. 성인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가 전국 평균치보다 3.1%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0).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학구열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수치라고 하겠다. 문해교육 관련 관계자들은 제주도의 비문해 학습자의 현황 수치를 이해하고 보다 많은 문해교원을 양성시키고 문해 학습을 전문적인 교육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의 문해 학습자 또한 타 지역의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에, 남성 보다는 여성이 가난과 가부장적인 사회 요인으로 학습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왔다.

‘문해’는 예전에 ‘문맹’이란 단어로 알려져 왔다. 그래서 ‘문해’보다 ‘문맹’이란 단어로 이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문해’는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대다수는 대화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문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힘들다. 비문해자들은 타인과 협동하기를 꺼리며 학습하기를 피한다.

성인 비문해자들은 성장기에 역사적, 사회적 원인으로 배우지 못한 문자로 인해 성인기를 글도 모르는 까막눈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노년기의 비문해자에 관한 사례 연구(최윤정, 2002; 최일선, 2003; 서숙영, 2007)에서 비문해가 현대인의 삶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잘 드러나 있다. 이와 더불어 무학력자들이 문해 학습 결과로 심리적 장애의 극복과 자아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움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학습 요구를 나타내는 등 학습자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문해 학습자들에게 있어 문해 학습 경험의 의미는 친구 만들기, 자신감 얻기, 한풀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인식, 심리적 자신감 회복 등으로 나타나 있다(정나현, 2014).

현재 지식기반의 정보화 시대에 지식과 정보는 가치 창출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해 능력이란 자아실현임과 동시에 사회 참여의 기본 수단이다. 문해 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며 인간 생활의 초석으로 인간의 성장, 사

회 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기반이다.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적절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비문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국민들 간의 교육 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김신일, 2009).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정규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 대한 제주 성인 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해교육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문제

이 연구는 제주지역 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해교육 학습자들에게 보다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문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제주 성인문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학습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제주 지역의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시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 3개의 주요 기관만 대상으로 한다.

둘째,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기관장과 직원을 면담 조사한 연구

이므로 문해 학습자들을 직접 면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지역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면서 행·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다른 측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4. 용어의 정의

가. 성인문해교육

1970년대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여 문해교육이 단순히 읽고 쓰고 셈하는 수준의 문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능문해 및 성인기초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해교육은 성인기초교육의 기초단계이며 문해교육과 성인기초교육은 평생교육에 있어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능문해는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글을 읽고 쓰고 셈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해교육 및 성인기초교육은 인간의 학습권 즉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을 생활의 주체자이자 성장의 주체자로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의 해방을 가져오게 되며 또한 사회적·문화적·직업적 적응을 도와주는 교육으로 그 사회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윤복남, 1999: 15-156). 문해란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문해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해교육기관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한글 해독과 기초 수학능력을 키우는 것을 성인 문해교육의 목표로 두고 있다.

나. 비문해자

비문해자(非文解者)란 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한다. 1990년대 들면서 문맹자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 비문해자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유럽 선진국은 글을 이해하고 셈하는 능력이 8, 9학년(중 2, 3학년) 수준에 미달하면

비문해자로 간주한다. 한국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비문해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해교육의 개념

‘문해’란 인간 생활 중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 능력이며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예전의 ‘문해’는 ‘문맹’이란 단어로 일축했었다. ‘문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문해란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국제성인문해조사(IALS)는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 1951)는 “문해자란 일상의 생활에서 짧고 단순한 문장을 이해하며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국제성인문해조사(IALS)는 ‘문해는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해서 문해의 측정영역을 산문 문해(prose literacy), 문서 문해(document literacy), 수량 문해(quantative literacy)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이희수, 2001; 노종철, 2007 재인용).

<표 II-1> 문해의 영역

산문 문해 (prose literacy)	논설, 기사, 시, 소설을 포함하는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문서 문해 (document literacy)	구직원서, 급여양식, 대중교통 시간표, 지도, 표, 그래프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찾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량 문해 (quantative literacy)	금전출납, 팁 계산, 주문양식완성, 대출이자 계산 등 인쇄된 자료에 포함된 숫자를 계산하거나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2).

문해교육은 ‘1990년 세계문해의 해’를 맞이하기 위한 문해교육 관련자들의 모임을 한국사회교육협회와 한국 위원회의 주최로 1989년 가을 유네스코 청년원에

서 개최되었다. 문해교육 관련자들의 모임에서 한글반, 한글교실, 한글학교 등의 이름으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을 글 모르는 사람, 문맹자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적합한 용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논의한 결과 ‘문해교육’이란 단어를 쓰도록 협의하였고 문해교육 대상자는 ‘비문해자’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생기게 되었다(공은화, 2007).

UN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선포하면서 기초교육단계의 국가의 의무교육을 강조하였으며(양병찬, 2004: 209), 1990년 UNESCO는 ‘국제 문해의 해’를 맞아 ‘모든 이를 위한 교육세계 선언’을 통해 문해교육은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개념을 표방하였다. 이는 이전까지 사회경제적인 활동의 기초 개념인 ‘기능문해’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체적인 시민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한 ‘비판문해’로 명명되며 개념의 확대를 가져왔다(박인종, 2009: 64).

다음의 <표 II-2>는 황종건, 윤복남, 이지혜(1990)가 공동으로 연구한 ‘도시 저소득층 여성의 문해 문제와 사회교육 참여조사’에서 문해 수준을 분류하고 설명한 것이다.

<표 II-2> 문해 수준 및 세부내용

문해수준	세부내용
비문해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수준, 셈은 전혀 못한다.
반문해	자기이름이나 간단한 단어를 읽기는 하나 쓰지는 못한다. 셈하기에 있어서는 간단한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다.
기초문해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문장을 이해함과 동시에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다. 버스의 방향표시나 간단한 안내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나 친구에게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다. 또한 가감승계를 할 수 있다.
기능문해	구청, 동사무소, 은행 등을 방문할 때 자유롭게 창구에서 신청서를 기입하고 스스로 모든 용무를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집회, 강연회, 기타 성인 교육 강좌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다. 가감승계뿐만 아니라 간단한 회계업무도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해의 수준은 다양하지만 현대사회활동에 있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는 문해가 아닌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과 안정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능적 문해를 말한다. 문해는 개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국민의 문해 정도를 조사하여 문해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 비교가 그러하듯이 UNESCO의 통계는 어떤 일관된 하나의 준거를 토대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 각국이 발표한 통계를 기초로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문맹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문맹율을 측정하는 어떠한 공통된 조사 도구도 마련되지 않았다. 즉 문맹의 판정은 어떤 객관적인 준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사실로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문맹율이 달라지는 것이며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문맹의 의미는 변화하는 것으로써 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문해의 수준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배천웅, 1989).

양수명(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인들의 문해 수준은 <표 II-3>에서와 같이 비문해가 최소한 2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해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문해로 보는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표 II-3> 국내 주요 성인문해 조사 내역

조사자	조사 대상	문맹률	문해자의 기준
중앙교육연구소 (1953)	전국 12세 이상 인구 0.5% 표집	22.1%	한글 편지 정도 읽고 쓰기
한국교육개발원 최운실 외 (1990)	전국 13세 이상 인구 2,116명 표집	13.7%	초보적인 문자 문해 이상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 외 (2002)	전국 20세 이상 인구 2,979명 표집	24.8%	초등 6학년 수준

※ 출처: 유효창 외(2003).

위의 표에서와 같이 중앙교육연구소(1953)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을 문해라고 본 반면, 한국교육개발원(2002)의 조사에서는 문해 수준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문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단순 문자해독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즉 기능문해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다(양수명, 2009).

2002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본격적인 전국 단위 문해실태 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인의 문해실태 조사연구(1989)”와 “한국의 문해실태와 문해교육(1990)”으로 2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는 1957년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전국 단위 문해실태 조사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3세 이상 인구 3,021만의 0.007%인 2,116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무선표집하여 조사하였다. 면담원에 의한 직접 조사 방법에 의해 조사 실시한 결과, 문자 비문해 집단은 5.9%(남자 3.9%, 여자 7.6%), 기초문해 단계에서의 비문해 집단은 9.1%(남자 7.0%, 여자 11.0%), 생활 기능 비문해는 남자 6.3%, 여자 11.7%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문해의 준거를 살펴보면 <표 II-4>와 같다(김종천, 2005). 문해의 준거는 초보적 문자문해, 기초문해, 생활 기능문해, 영역별 기능문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표 II-4> 문해의 준거

초보적 문자문해	단순히 낱개의 문자나 숫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한글로 이름 쓰기, 그림보고 숫자 파악하기, 시계보기를 포함하였다.
기초문해	실생활 영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3R)의 기능을 보유하고, 문해 기능의 최저 기준은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이다. 읽기(광고문 해독, 문장요지 파악), 쓰기(문장 만들기), 셈하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를 각각 2문항씩 제시하였다.
생활 기능문해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 기능 보유를 전제로 하여 실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기능(life skill)을 보유한 상태이다. 기본적인 생활기능 문해란 가정 및 사회생활의 장면에서 필요로 하는 의식주 생활관리 기능과 건강, 보건 및 재산 관리 기능이다. 소비생활 영위기능의 보유와 동시에 공공생활 영위를 위한 시민상식 및 교통·통신 이용 기능, 민원서류 처리 및 공공기관 시설 이용 기능, 대중매체 해독 및 외래어 이해 기능 등을 기본적인 수준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역별	기초문해 기능과 생활문해 기능의 보유를 전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기능문해	직업기술 및 과학, 컴퓨터 등의 제반 사회구성 특수영역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기능의 보유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경제적 문해는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지식과 인식, 이해, 활용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지식 및 기능의 보유상태를 포함한다.
------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1989).

2. UNESCO의 문해교육

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유네스코는 창설 총회 때부터 “교육하는 일은 자유롭게 하는 일(to educate is to liberate)”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교육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전개하여 왔다. 유네스코 창립 후 약 10년을 주기로 세계성인교육회의가 5차례 개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국제적 보급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었다(이영호, 2005).

전 세계가 동과 서로 나뉘어 이념전쟁을 벌이던 냉전의 시기인 1970년대 초 각국의 경제적 도약에 따른 교육의 역할이 중시되어 전 세계 국가에서 취학률이 증가하고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교육의 질은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이 팽배해져 Coombs는 세계교육의 위기와 학교교육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학교교육의 밖, 즉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Faure는 1972년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Coombs의 학교교육 위기론의 대안으로서 21개 건의사항 중 “모든 국가는 평생교육을 교육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삼아야 한다.”며, 평생교육의 사상적 맹아들을 학습사회라는 거대한 열개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학습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중요 원리와 권고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이희수, 조순옥, 2005; 조미경, 2012, 재인용).

조미경(2012)은 유네스코 문해교육의 변화과정을 생존을 위한 문해교육의 태동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의 전개기,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의 발전기의 세단계로 나누어 문해교육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생존을 위한 문해교육의 태동기는 유네스코의 창립에서부터 1970년대 의식화 문해의 등장 시기로 문해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있고 평생교육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의식화 문해가 등장하였던 시기이다. 의식화 문해란 단어 읽기보다는 한사람의 세상을 읽는, 세상과 관련하는, 세상에 질문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이러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둘째,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의 전개기는 기초 인권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이 논의되었던 시기이다. 1960년 Montreal 선언문을 통해(성인학습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것임을 선언) 학습권을 선언한 이후 1985년 Paris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인 비문해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문화나 기술 문해로까지 확대하여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이며 국가의 기본 의무, 국가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문해교육은 의식고양과 권한부여를 통해 학습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문해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평생을 통한 학습을 위한 촉매제로 여기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 발전기의 문해교육은 삶, 문화, 경제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제와 복잡성에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2009년 브라질 Belem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삶과 학습; 성인 학습의 힘(Living and learning for a viable future: the power of adult learning)”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행동강령을 통해 평생학습을 향하여 성인문해, 정책, 관리, 재원, 참여, 형평에 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문해는 평생학습을 위한 주요 역량으로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의 비문해와 성인교육에의 참여에 있어 참여 목적까지 고려하며, 학습자 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습자 중심의 기회 제공을 논의하였다.

또한 김미선(2008)에 의하면 1965년 테헤란에서 “비문해 일소를 위한 세계 문교부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노력한 결과로 1970년대에는 비문해율이 38.5%로 감소하였으며 1995년 현재는 22.6%로 감소하였으나 비문해자의 수는 인구증가와 새로운 문해자들의 비문해로의 복귀현상으로 인하여 여전히 8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세계 지역별 비문해율을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전 세계 지역별 비문해율

구분	1970(A)	1985	1990	1995(B)	(A-B)
전세계비문해자수(만명)	8.900	9.495	9.481	8.850	50
전세계비문해율(%)	38.5	29.4	22.1	22.6	15.9
발전도상국	54.7	39.3	34.9	29.6	25.1
아프리카	77.4	59.2	52.7	43.8	33.6
아랍권	73.5	54.5	48.7	43.5	30.1
라틴아메리카	26.2	17.7	15.3	13.4	12.8
동아시아	46.8	28.5	23.8	16.4	30.4
남아시아	68.7	57.8	53.9	49.8	18.9
선진국	6.2	4.6	3.3	1.3	4.9

※ 출처: UNESCO(1990: 5).

이 통계에 의하면 발전도상국의 비문해율은 1970년 54.7%에서 1995년 현재 29.6%로 감소되었으며 아프리카, 동아시아, 아랍권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랍권은 1995년 현재에도 여전히 비문해율이 높고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1970년 46.8%에서 1995년 현재 16.4%로 감소한 것은 각 국가들의 노력이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70년 비문해율 6.2%에서 1995년 현재 1.3%로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비문해자로 남아 있어 비문해자의 완전 해소는 쉬운 과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은 제56차 유엔총회(2001)에서 2003-2012년을 ‘유엔 문해 10년’으로 정하고, 문해가 모든 어린이 · 청소년 · 성인의 기본 생활 기능을 익히는데 핵심요소이며, 기초교육은 21세기 효과적인 사회 · 경제 참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규정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해(Literacy for All)’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초 교육’의 핵심이며, 빈곤 퇴치 · 어린이 사망률 감소 · 성평등 달성 · 지속가능한 발전 · 평화 ·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문해 10년은 EFA사업 수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세계의 비문해 분포는 빈곤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수억 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없으며,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비문해 퇴치, 인권 회복을 위해 유네스코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해 교육부문에서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진전이 있었지만, 학교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수많은 아이들이 매년 성장하면서 전 세계 비문해자 수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문해 교육의 확대가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네스코가 문해 운동을 시작한 1950년대에 세계인구의 43-45%인 6억 9천만-7억 2천만명의 비문해자가 있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성인 비문해자의 수는 7억 7,540만 명(비문해율 15.9%)에 이른다.

줄리안 헉슬리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은 “먼저 비문해를 공략하라. 이는 세계의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가장 먼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비문해자는 그들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성취와 발전의 기초가 되는 문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전했다.

유네스코 통계원(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에서는 매년 문해 및 학습성과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성인 및 청년 문해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표 II-6> 참조). EFA 목표 중 하나로 국제사회는 성인문해율을 2000년 기준에서 2015년까지 50% 향상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79.7%였던 성인문해율은 2012년 현재 84.1%의 미미한 향상만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여전히 7억 7,540만 여명의 비문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문해자 중 절반 이상인 64%가 여성으로 여성비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인구증가율에 비해 문해 감소율이 저조하여 향후에는 비문해자수가 증가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

<표 II-6> 세계 문해 현황

총 성인문해율	84.1%
남성 성인문해율	88.6%
여성 성인문해율	79.7%
총 성인 비문해자	7억 7,540만 명

성인 비문해자 중 여성비율	64.1%
----------------	-------

※ 출처: 유네스코통계원(2012).

그러나 위와 같은 통계는 매우 기초적인 문해수준에 대한 조사로 과연 현대사회의 복잡한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능문해 수준을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비문해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4%정도가 기능비문해자로 조사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각각 16%와 9%가 기능문해 수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위와 같은 기능문해 문제를 가진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문해교육 관련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2012) 또한 강조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

가. 성인문해학습자

‘문해’란 단순히 문자 해독,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의 습득만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각 개인 개인의 의미구성과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다(이지혜, 2011).

많은 문해학습자들은 학력뿐만 아니라 성별과 계층, 사회, 경제 등에서 많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다. 그 결과 국민평균 학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수준에 미달되는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했던 저학력 층은 평생학습 참여율에서도 현격한 차이로 교육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저학력 교육소외 집단을 위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주환, 2013).

2013년도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서 1차 분석한 자료는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역량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러 나라 성인들의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다양한 스킬들(읽기, 쓰기, 수리력, ICT, 문제해결력, 과업재량, 직장

내 학습, 영향력, 협동, 자기관리, 손기술, 신체활동)에 대한 OECD의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수준은 중·하진국 수준이다. 언어능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나라의 생산성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성인들의 생활역량은 그들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국 성인들의 생활역량이 조사국 중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는 한국 성인들의 생활기술 역량과 학력 간에 심각한 불일치 현상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한준상, 2014).

성정숙(2008. 재인용)에 의하면 정부는 2000년 들어 OECD 가입국으로서 문해교육과 모든 국민의 기초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가적 교육정책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요구받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참여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도에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제시하였으며, 그 안에는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 취약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문해 능력 증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민주시민교육, 노인교육 활성화 사업, 평생학습 소외계층 지원 사업, 평생학습 자원봉사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7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취약계층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지원 및 교육기회 확대, 국민 신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국민 문해교육 운동 전개가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28-30).

문해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교육의 책무를 이항하는 기초이자 핵심이다. 헌법은 국가의 의무교육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학습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의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7>에서와 같이 다수의 비문해자들이 경제적 형편에 기인하여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7> 학력수준별 교육기회 미충족 이유

구분	계	충족	미 충족	미충족 이유						
				경제 적형 편	학교 가멸 어서	시험 실패	부모 의사 고 방식	집안 돌봄	질병, 신체 적 장애	기타
초졸 이하	100	5.5	94.5	63.9	1.5	1.2	24.4	5.8	1.6	1.4
중졸	100	8.7	91.3	75.5	1.2	4.6	10.4	6	1.1	1.2
고졸	100	25.1	74.9	67.7	1.2	18.5	6.1	4.7	0.9	0.9
대졸 이상	100	68.6	31.4	56.6	2	27.2	4.5	7.7	0.6	1.4

※ 출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워크숍 자료(2006).

2008년 국립국어원은 전국의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결과는 성에 따라 비문해율이 차이가 났다. 남성(0.5%)보다 여성(2.8%)의 비문해율이 높았다. 남성의 비문해율은 50대 0.2%, 60대 0.9%, 70대 9.1%로 증가하는 데 비해 여성의 비문해율은 50대 1.2%, 60대 7.6%, 70대 28.6%로 증가한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70대 여성의 경우 28.6%가 비문해자로서, 4명 중 1명이 비문해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높은 비문해율은 교육기회의 부재 때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의 요구와 상황을 감안한 문해 교육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학교를 못 다녔다'가 82.0%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최고령층(79세)이 태어난 1930년의 경우 남성 취학률이 25.8%인데 비해 여성 취학률은 5.7%에 불과하다. 201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서 성인후기 65세 이상 여성 중에서 초등학교 미취학과 중퇴 여성은 1,298,323명으로 40.2%이다(김금선, 2014).

나. 성인문해학습자의 특성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Lindeman(1926)은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했고, 이는 성인학습 연구에 기본원리로 간주

되고 있다. 첫째, 성인들은 학습이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욕구와 흥미를 경험할 때 학습이 촉진된다. 둘째, 성인학습은 생활지향성(life-centered)에 기초한다. 셋째, 경험은 성인학습의 풍부한 원천이 된다. 넷째, 성인은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깊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성인들의 개인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박은선, 2009).

성인학습자는 아동학습자와 달리 자신의 학습욕구에 의해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습과정에 진입한다.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자발성을 한준상(2002)은 ‘학습은 인간의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인간을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즉 ‘배우고 공부하는 인간’이라 명명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습을 선택한다(김종천, 2014). 성인교육학습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학습에 임한다. 그래서 현실문제에 관심이 많고 내재적 동기로 학습에 임할 뿐 아니라 교육내용, 교수법 및 학습결과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다(여태철, 1998).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학습방법에 따라 구분하였다(윤운성, 2000). 학습자의 특성을 알게 될 때 학습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습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표 II-8>과 같다.

<표 II-8> 성인학습자의 특성

성인학습	성인학습자의 특성
학습주의	학습자발성, 개방성(열린사회), 주체성, 생활중심(과제중심)
자기주도학습	독자적인 협상능력, 긍정적 자아개념(자기확신), 내재적 동기, 독립성, 환경과의 상호작용
학습방법의 학습	자기반성, 주도성, 자기확신
경험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 누적된 경험의 소유, 생활중심, 지속적인 학습
전환학습	자기반성, 계속적 변화, 지적구성의 주체, 능동성

※ 출처: 윤운성(2000).

<표 II-8>에 나타나듯이, 문해학습자는 생계나 자녀양육과 같은 성인으로서의

삶의 조건에 있어 다른 성인학습자와 다르지 않으나 비문해 경험을 통해 형성된 학습에 대한 기대나 학습의 능력은 다른 학습자와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성인문해학습자의 실태와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평생교육 시대를 지향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성인학습에서 교육은 스스로 선택과 자신의 의지로 하는 학습이다.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나 상황을 학습으로 보고 적용한다. 교사와 학생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되며 학습자들 간에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향상을 위하여 학습하기도 한다. 즉 문해교육도 성인학습의 방법으로 자발적이며 생활적응과 상호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원리를 그대로 사용한다(권두승, 2000). Knowles(1989)는 성인학습을 생활 지향성과 학습경험의 실제적 사용을 안드라고지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았다. 또한 교사도 성인 학습자들과 문제를 함께 탐구하고 풀어나가는 동반자로서 보았다(한혜정, 2014).

다. 성인교육의 특징

황중건에 따르면 성인교육은 인생 그 자체와 같이 광범하며 그 대상의 연령, 교육정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광범하고 교육방법이 비형식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인들의 한글공부로부터 전자계산기 조작의 훈련에 이르기까지, 또는 농사기술의 교육으로부터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인교육의 내용 속에 포함된다. 또한 황중건은 성인교육 내용의 특징을 다음 다섯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문맹 및 성인기초교육으로 성인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표현과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뜻있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둘째, 문학, 예술, 과학, 철학, 종교 등 광범한 영역에 처하여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인생과 자연을 감상하고 자연의 모든 법칙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성인교육의 핵심이 된다. 셋째, 시민교육으로 인권의 존중, 책임완수와 준법, 봉사와 협동, 좋은 지도자의 선출 등 훌륭한 시민으로서 직접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지역사

회 또는 국가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교육의 문제는 크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직업 및 기술의 훈련이다. 보다 나은 직업적 성취를 위하여 또는 날로 발달해 가는 기술의 훈련을 위하여 끊임없는 훈련의 경험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여가 선용을 통한 자기 성장이다. 어떻게 여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의 진보발전이 결정된다. 여가의 이용을 지배하는 방법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매스미디어’로서 이를 활용하는 교육적 힘은 큰 것이다. 황종건은 이러한 성인교육의 내용 외에 또 하나 시대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국제이해를 위한 성인교육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국제이해와 협동을 증진하기 위한 성인교육이다(히고 코우세이, 2008).

라.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의 발전

최제만(1959)에 따르면, 36년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당시 극히 제한적이었던 근대적 교육기회로 인해 우리의 말과 글을 익힐 기회가 없었던 우리 국민은 1945년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당시 비문해자는 국내 12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약 78%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공민학교를 운영하면서 문맹퇴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45년에 성인교육위원회가 조직되어 문맹퇴치교육을 지도해 나갈 성인교육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성인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국문강습소의 활동은 1946년부터 추진되어 1947년에는 이후에 다가올 보통선거에 대비하여 18세 이상의 모든 문맹자들을 일정한 기간 안에 한글을 습득시켜 보통선거에 참여하게 함은 물론 조국 재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5-6월 두 달 동안 추진되었다. 당시 주목할 수 있는 단체로는 한글 문화보급회가 있었다. 이 단체는 한글의 보급을 목적으로 결성하여 조선어학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강연회, 강습회, 기관지, 출판물 통하여 한글을 널리 보급시켰던 단체이다(히고 코우세이, 2008).

한국교육개발원(2002)에 의하면 문교부는 5년에 걸친 전국 국문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것은 1954년 당시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한 것이다(김종천, 2005).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해방 후의 문해교육사업은 전후 1954년에서 1958년까지 국가재건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로 실시되었던 정부주도의 “문맹교육 5개년 계획”이었다. 문맹교육 5개년 사업은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12세 이상의 문맹자에게 70일 내지 90일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초등학교 2학년 수료 정도의 국문 해득력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산력, 초보적 과학 지식 및 공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었다(이현순, 2003). 그리고 1961년부터는 문맹퇴치사업의 성격과 주도기관에 있어 다소의 변화가 있었다. 국문보급에 관한 업무가 문교부 소관업무로 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건국민운동본부 사업으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당시 재건국민운동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1961년의 문맹율은 8.1%로 절감된 것으로 보고되었다(1960년도 경제기획원 발표는 27.9%). 또한 재건본부 중앙회에서는 1965년도부터 중등학교 미취학자를 위한 재건학교를 운영하여 성인교육으로서 문해교육을 시도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4년을 ‘문맹 없는 마을’을 만드는 해로 정하고, 1962년에는 60만 명을 교육하였고, 1963년에는 30만 명을 교육하였다(대한교육연합회, 1964). 1964년에는 16세 이상 30세 미만의 전체 문맹자 25만 명을 교육시키기로 하였으나 1963년 12월 민정 복귀를 계기로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존폐와 그 후의 법적인 지위문제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결국 1964년 8월 재건국민운동본부는 해체되고 이후 민간단체로서의 재건국민운동중앙회로 변신하고 말았다(윤복남, 1990).

<표 II-9> 12세 이상 문맹자 수(재건국민운동본부)

연도	남자	여자	계	비문해자(%)
1961	370,664	1,139,334	1,509,998	8.1
1962	344,394	1,249,735	1,594,129	9.5

※ 출처: 대한교육연합회(1964).

위의 표에서 1961년과 1962년의 8.1%와 9.5%는 1959년 문교부 통계자료 4.1%와 대조된다.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통계의 비문해율이 높은 것은 초등학교 졸업 후 또는 문해교육 이후에 계속적인 후속 문해교육이나 성인기초교육과의 연결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윤복남, 1990).

실제 문맹퇴치 사업기관인 UNESC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정세와 대외적인 문해교육 사업 추진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주로 초등학교 부설 성인교육 교실을 통한 학교 중심의 문해 교육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학교부설 성인교육 반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성인교육 반은 1개월 단위로 실시되었으며 교육목적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국문을 해득하지 못한 만 12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다.

1970년대 이후로도 물론 일부 공민학교나 종교시설, 검정고시학원, 민간자원단체, 사회복지 법인 등이 꾸준히 기초 문해교육을 실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990년 ‘세계 문해의 해’를 통한 새로운 문해교육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문해교육 관련 자료와 연구는 약 20여 년간 휴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김미선(2008)은 1990년 당시 자원단체들과 사회교육 학계는 “국제 문해교육의 해”를 기점으로 “한국 문해교육 협회”를 결성하고 민간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고 했다. 오랫동안 사용되던 “문맹퇴치”라는 용어도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문자해득이라는 의미의 “문해교육”으로 바꾸고 비문해실태조사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해교육 자원단체들과 학계의 움직임은 운동의 힘으로 결집하는 데 실패하여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국가의 정책적 관심을 얻는데도 실패하였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정부로 하여금 문해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0년대 활발해진 민간차원 문해교육 운동이 밑거름이 된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문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민간교육단체와 교육학자들의 노력으로 1959년 비문해율이 4.1%로 한국에는 더 이상 문해교육 정책이 필요 없다고 공포한지 47년 만에 정부는 2005년 현재 660만 명의 중졸 미만자 등을 포함한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문해교육을 위하여 초·중학교, 공공 및 민간단체, 야학 등의 문해교육에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175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16억 원을 재정 지원하

였다.

성인 문해교육의 잠재적 수요 집단은 2005년 통계청 조사에 근거한 학력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가늠할 수 있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성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15세 이상) 38,055,306명 중에서 5,991,23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5.74%에 해당한다(박인중, 2014).

국민 신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국민 문해교육 운동 전개에서는 2003년에 성인 문해 및 생활기술 조사 도구개발, 전 국민 잔류 비문해자 퇴치 운동,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성인문해능력 및 생활기술향상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보급, 2004년에 초·중학교 학력인정제 도입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있었다.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문해교육의 새 지평이 열렸다. 2007년 공포된 평생교육법은 비록 문자해득으로 문해교육의 의미를 축소시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률로서는 처음으로 문해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 의무와 교육감을 통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정, 그리고 학력인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허준(2008)은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19만 여명의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성인문해 대상자 지원 현황

연도	국고지원	지자체 대응투자(비율)	지원 지자체	문해교육기관	수혜자
2006년	1,375백만원	828백만원(62%)	61개	178개	14,668명
2007년	1,800백만원	1,619백만원(89.9%)	108개	356개	21,294명
2008년	2,000백만원	3,000백만원(150.0%)	118개	439개	25,579명
2009년	2,000백만원	2,424백만원(121.2%)	130개	353개	24,638명
2010년	2,000백만원	2,398백만원(119.9%)	134개	348개	23,778명
2011년	1,800백만원	2,068백만원(114.9%)	129개	360개	20,135명
2012년	1,500백만원	2,026백만원(135.1%)	107개	189개	16,334명

2013년	1,950백만원	2,263백만원(116.1%)	130개	261개	19,745명
2014년	2,200백만원	3,132백만원(142.4%)	142개	306개	23,879명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 글로벌 시대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비문해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대중 매체나 생활, 경제, 기술, 정보, 과학 등 다양한 문해 영역에서 살고 있으며 문해 수준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오늘의 정보가 내일이면 버려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문해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삶에 놓여 있다. 성인문해학습자에 대한 교육은 일반 성인학습자와는 다른 기법의 학습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그러한 노력들이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으로 두 요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제주 성인문해교육 현황

가.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시작

제주의 미군정기 시기의 교육정책 가운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교육의 문제였다. 광복 직후 12세 이상의 총 인구 중 78%가 문맹이라는 기록과 함께 문맹 퇴치와 교화 사업에 치중하였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초등 의무교육과 함께 문맹퇴치에 역점을 두어 사회교육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1954년에는 초등학교 내에 공민학교 성인반이 부설되었으며 전국적인 문자해독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한국지역사회교육 제주도협의회가 1986년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학교 이념을 보급하는 지역사회 학교를 조직하였다. 이후 1999년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새로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0년 3월에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국가수준에서는 평생교육센터를, 지역수준에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디지털 서귀포 문화대전」-서귀포 향토문화백과, 2014).

1952년 유네스코와 유엔 한국부흥단의 재정 지원으로 동리 단위의 농사 보급회라는 농촌지도요원의 조직체가 구성되고 이러한 농촌 지도원 양성 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1954년경이다. 6·25 휴전 협정 이후인 1954년에는 국민학교 내에 공민학교 성인반이 부설되었으며 전국적인 문자 해독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9년에 조직된 순수 민간차원의 한국지역사회학교 후원회의 일환으로 한국지역사회교육 제주도협의회가 1986년 10월에 발족, 당시 서귀서국민학교, 하례국민학교 등에 지역사회 학교를 조직하였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 학교 이념을 보급하는 한편 학교단위의 부모 역할 교육, 취미교실이 운영되었다. 서귀포시는 광복 이후 많은 민간조직이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대중계몽활동을 전개했다. 즉, 시민사회 주도로 평생학습의 변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향토계몽운동, 학교 단위의 지역사회교육 및 자원단체의 의식함양교육 등이 대중계몽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이 새롭게 제정, 공포되고, 2000년 3월 13일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국가수준에서는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수준에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대가 도래하였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생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

우리나라의 문해교육 정책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과 ‘문맹퇴치 5개년 계획(1954-1958)’이 수립되어 농촌지역의 비문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농한기에 교육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문해교육 정책 무관심 속에 민간에 의한 문해교육이 주도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비문해 실태에 대한 조

사와 연구들이 다시 시작되면서 황중건(1987)의 도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해조사, 정지웅(1989)의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90년에 유네스코가 “세계 문해교육의 해”를 선포하므로써 ‘문맹퇴치’라는 용어 대신에 ‘문해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된 ‘교육소외계층지원공모사업’에 이어 2002년도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면서 국가차원에서 문해교육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6년부터 국민 기초능력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 비문해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인학습자에게 제2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강사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체제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초자치단체,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8년차로 매년 18여억 원씩 지원되었으며, 연 평균 6천여 명의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의 질 제고 및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역거점기관은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계획을 3개년으로 수립하고, 지역 문해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홍숙희, 2014).

제주도내의 평생학습기관은 2000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되면서 급격히 관련 기관이 증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를 보면 제주시 173개, 서귀포시 78개의 기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 성인의 한글교육을 위한 문해교육기관은 제주시 (사)동려평생학교를 비롯한 10여개의 기관이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09년 문해교육 등 성인기초능력 향상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라는 명목으로 과거 경제적 빈곤과 제주 4.3사건 등의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와 국제취업·결혼 등으로 인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 교실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을 통한 기초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력 배양으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문해교육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여 도내 문해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문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읍·면 권역별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및 서귀포오석학교와 연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읍면동 권역별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실력을 갖춘 교사 확보 및 학습자들의 계속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읍·면·동 권역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복지 실현 및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한 것이다.

2010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결과 자격 취득자 중 우수인재 선출 선용으로 고용 창출, 일반 문해자 및 거주 외국인인 경우 한글교육을 통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고용 가능성 증대, 시대적·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일반 성인 비문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자존감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교양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각해져가는 노인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2013년 현재 제주에서 운영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는 약 15개(2013년도교육청 주관 문해교원 양성 당시 참가모집기관 및 단체 위주)의 기관 및 단체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비영리 민간단체, 외국인 및 이주민 관련기관 등이다. 이상의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해교육 강사나 지도사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이거나 한국어 교원, 성인문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그리고 문해교육 강사나 지도사들은 대부분 소액의 강사료를 받거나 자원 활동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문해교육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연령이 60대 이상 여성이 많으며, 읍·면·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교육기본법의 규정대로 우리의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들의 학습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연구책임자 김진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무학자는 7.8%

로 전국의 무학자 4.9%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뉴스제주 이용연, 2013. 4. 15.). 2010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중졸 미만 학력 인구가 20세 이상 인구 대비 15.7%로 약 577만 명이고, 제주도는 그 중 18.8%로 73,162 명으로 나타났다. 성인문해교육 잠재 수요자가 전국 평균치보다 3.1%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 남성과 여성의 성인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를 비교해 보면, 여성이 54,012명이고 남성이 19,15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8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2010).

다. 제주 다문화 문해교육

1990년대 농촌지역 미혼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 장려되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시키려는 국제결혼이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꾸러지기 시작했다. 2009년에 들어서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정점을 찍었고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사회 부적응, 가정교육의 부재, 가정폭력, 인권문제, 범죄 행위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에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 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을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범주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서혁, 2007). 현재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문해교육의 하나로 한국어 교육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정 내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심이라 하겠다.

<표 II-11> 다문화 가족의 유형

다문화 가정	속한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 출처: 구은미(2010).

다문화 가정의 문해교육은 우리나라의 일반가정과 다른 의미로 다른 어떤 교육보다 우선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언어는 모든 의사소통의 기초이며, 타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한국어 습득을 제시할 수 있다(구은미, 2010).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해교육은 제주에서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다문화 교육기관과 시·읍·면 주민센터 등에서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5.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제주 주요 3개의 성인문해교육기관에 근무 중인 기관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고 설문을 통해 연구한 결과로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여성사회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여성 성인 문해교육의 발전방안을 연구한 이현순(2003)은 1950년대부터 건립된 양원주부학교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3개의 여성 문해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과 조직 및 프로그램, 설립목적, 특징, 교육기관의 홍보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해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성인의 문해교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김종천(2005)의 연구에서 비문해자가 문해교육을 받는 목적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보다는 ‘답답하고 서러운’ 한풀이를 위해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학습 과목은 기초 국어와 수학의 선호도가 높고, 학습 기간은 3년 이상 배우기를 원하는 학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은화(2007)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문해교육기관 4곳을 선정하고 질

적 연구의 심층면담의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4기관의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한 후 각 기관의 특징적인 문해교육 방법을 살펴보고 좀 더 나은 성인기초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성정숙(2008)은 성인여성 문해교육 실태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문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재, 학습 횟수와 시간, 교·강사와 교수법, 학습 환경, 수업의 활동과 성인 여성학습자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부천시문해교육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문해교육 네트워크 형성과정과 특징을 연구한 김은경(2008)은 지역 네트워크란 지역 내 민·관·산·학의 주체들이 지역 문제 해결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일정 지역 내 연결망(Web)으로 지역사회의 자체역량 및 고유성, 자율과 자치, 상호협력과 다양성, 의사소통과 같은 가치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공동의 목적과 가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서로 다른 입장의 자원들이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긴장과 갈등, 많은 고민과 토론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는 구성원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으로 작동하며 지역 스스로 발전의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내부기관들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자기완결구조 내지는 문제해결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중심의 성인 학습자의 문해교육정책에 관한 김미선(2008)의 연구에서 비문해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사업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제거해 주고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 사회전체의 통합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한다.

김중천(2014)은 문해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생애경험과 학습경험을 통해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문해시기의 관점, 학습참여시기의 관점, 문해 이후 시기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로 문해학습 참여가 가지는 의미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좀 더 새롭게 살아가는 계기를 만나는 과정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변화에 동참하는 문제의식과 참여의식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김금선(2014)은 성인후기 비문해 여성의 문해교육 참여와 자아통합감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후기 비문해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해교육 참여는

자아통합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문해교육 참여는 비문해로 일생을 살아야만 했던 환을 풀어내고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며 학습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홍숙희(2014)는 제주지역 문해교육기관 유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 실적 및 학습자 지원과 관리 방법, 성인학습자 수 및 비율, 문해교육기관 시설 및 재정 수입 현황, 문해교육기관 인력 및 교·강사 배치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것을 기초로 제주지역의 비문해 해소를 위해 제주 성인문해교육 실태와 수준을 분석하여 제주의 기초문해 능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위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문해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평생학습진흥원과 국내 문해학습기관, 문해학습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문해교육 자료 및 논문을 참고하였다. 또한 정책 보고서와 통계청의 통계자료, 인터넷 정보와 신문 자료 등도 분석하였다. 성인문해교육 관련 논문들은 비문해자 조사 논문과 국내·외 문해교육의 역사, 문해교육의 필요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심층면접

가. 연구 기관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문해교육 실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존하는, 비문해자를 위해 10년 이상 문해교육 경력이 있는 대표 문해교육 기관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정하는 문해교육 대표기관들이며 둘째,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제주도 거점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셋째, 문해교육이 1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첫째 기관은 (사)동려평생학교로 제주지역 문해교육 기관의 거점기관으로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에서 오랜 문해교육 역사를 지닌 곳이다. 둘째 기관은 영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10년 이상의 문해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셋째 기관은 서귀포 오석학교로 서귀포시

지역을 대표하고 있으며 여기 또한 10년 이상의 문해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표 III-1> 연구대상 성인문해교육기관

항목	(사)동려평생학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오석학교
문해교육의 목적	배움의 기회 제공, 진취적인 자세 확립,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인 양성	지역주민에게 학습기회 제공, 일상생활 불편 해소, 자존감 향상,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	성인문해 능력향상을 통해 자신감 획득,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학습 과목	소망·배움·지혜의 나무, 초등국어·수학 ·사회·과학	소망·배움·지혜의 나무, 초등국어·수학 ·사회·과학	소망·배움·지혜의 나무, 초등국어·수학 ·사회·과학
학습 기간	주5일, 1일 4교시	주3일, 1일 2교시	주5일, 1일 2교시

나. 면담조사 대상자

이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면담을 보충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의 실태는 여러 형태의 문헌자료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 실태 변화는 현재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관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답변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 그래서 위 3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 1번의 방문 면담과 각 1번의 메일 설문을 바탕으로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보았다.

<표 III-2> 면담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한○○	김○○	김○○
근무지	(사)동려평생학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오석학교
연령대	60대	50대	40대
거주지	제주시	제주시	서귀포시
문해교육 경력	20년	없음	10년
직함	이사장	팀장	교무부장

기관의 근무 경력	34년	10년	10년
기관의 문해교육기간	39	10년	47

다. 조사도구

본 연구도구는 문헌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 성인문해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조사 항목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지도교수와 연구자가 상의하여 작성하였다.

<표 III-3> 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지, 연령, 직함, 문해교육 경력, 거주지
문해교육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 • 성인문해교육의 목적 • 성인문해교육 과목과 학습 기간
제주 성인 문해교육의 실태 및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특성 •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실태 • 학습자들의 특성 •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항
제주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의 문제점 • 성인문해교육의 저해요인 • 성인문해교육의 촉진요인 •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

3. 자료수집 및 분석

문헌연구는 국내의 문해교육 관련 논문 자료와 다양한 보고서, 대중 매체의 정보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해교육기관과 정책,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면담조사는 1:1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1시간 정도 면담을 하였다. 사전에 (사)동려평생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요청을 하였다. 그와 함께 다른

문해교육기관과 직원을 추천 받고 면담 승낙을 받았다. 면담 당일에 방문한다는 확인을 주고 약속한 시간에 해당 기관을 찾아갔다. 인사를 나눈 뒤 녹음이 가능한지를 허락받고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녹음을 하였다. 면담은 면담자의 일반적 사항,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에 대한 사항, 제주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사항,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 및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항, 제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

가.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현황

제주지역의 문해교육은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이 이루어지는 해방 이후에 성인 교육협의회와 문맹퇴치사업이 전개되면서 출발한다. 1947년에 일본 식민정책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문맹자들을 보선의 원활한 실시와 조국광복의 정치적 과제로 문해교육이 이루어졌다. 1949년에는 국문강습소가 문맹퇴치 활동만을 하지 않고 계몽교화, 한글 보급 교재 인쇄, 제정 추진 등으로 활동을 확대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제주도내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에 의해 군내 문맹자를 대상으로 ‘초등국민학교’를 설치하여 초등학교 졸업정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문맹퇴치사업은 1954년에 19세 이상 문맹자를 대상으로 초등 2학년 수준의 문해교육을 실시하였고, 1955년에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12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56년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위해 12세 이상 45세 이하의 문맹자에게 교육을 하였고 1957년은 각 초등학교를 단위로 문해교육이 이루어졌다. 국민학교는 미군정에 의해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학령을 초과한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 공민, 국어, 산수 등을 가르쳤다. 이후 제주지역에서의 성인문해교육은 민간차원의 대중계몽운동을 비롯하여 직업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제주시 지역의 문해교육기관은 1975년 당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제주 출신 대학생과 제주도내 대학 재학생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순수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사회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학령기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비롯한 문해교육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지역의 문해교육기관은 1976년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

회의 승인을 받고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귀포 재건학교’로 개교되었다. 이 학교는 그 당시 서귀포 지역에서 유일한 재건학교였다.

제주시 지역의 성인문해교육 거점기관은 2009년부터 동려평생학교가 선정이 되어 제주시 지역의 성인문해교육의 발전에 부흥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초등학교를 인정받는 학력인정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어 성인문해 교육과정 3 단계를 모두 수료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무시험으로 성인문해학습자들의 가슴에 졸업장을 안겨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2010년부터 서귀포오석학교가 선정되어 서귀포지역 문해학습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IV-1>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 실태

기관명	대상	학교건물	교육과정	수강료
국제가정문화원	결혼 이민자	무상 임차	한국어기초,중급,고급	무료
동려평생학교	비문해자	무상 임차	초, 중등	무료
제주등하학교	성인	유상 임차	중등	무료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 이민자	유상 임차	한국어교육	무료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비문해자	무상 임차		무료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비문해자	자가	한글교실, 사회통합	무료
성산원광한글문화교실	결혼이주여성	무상 임차	한글교육,	무료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비문해자	자가	한글기초,중급	무료
영락종합사회복지관	비문해자	자가	초등1,2,3단계	무료
서귀포오석학교	비문해자	무상 임차	초, 중등	무료
제주다문화가정센터	다문화 가족	유상 임차	한국어(기초,중급,고급)	무료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유상 임차	한국어교육	무료
제주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민	유상 임차	한국어교실,기초직무교육, 문 화학교,나들이체험,	무료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장애인 및 성인 비문해자	유상 임차	초, 중, 외국어반	무료

※ 출처: 홍숙희(2014).

나. 제주의 주요 성인문해교육기관

동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진취적인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남을 위하는 봉사

정신을 키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975년 4월 3일 청소년 교육을 시작하였다. 동려는 ‘같은 길을 가는 나그네’라는 뜻으로 1974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학생들과 제주도내 4개 대학 재학생 및 일반인 6명이 모여 야간학교 설립을 협의한 후 조직한 단체이다. 1992년 3월에는 1980년대 이전 초등교육의 의무교육에서 밀려난 주부들 5-6명이 초등교육과정을 받기 위해 신입생으로 등록하면서 정식으로 초등반이 개설되었다. 이런 계기로 동려는 제주시 지역의 문해교육 시발점이 되었다.

“1975년도에는 문해교육이 아니라 청소년교육을 했습니다. 1990년도에 들어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울 수 없느냐는 문의가 들어오면서 초등반을 신설하고 이래저래 홍보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들어오다보니까. 과거 최초에는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불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간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1990년도부터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처음 초등부를 신설했어요.” (한ㅇㅇ)

동려에서는 현재 주간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망 · 배움 · 지혜의 나무, 초등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 편성은 한글 ‘ㄱ, ㄴ’을 배우는 수준인 기초반(초등 1-2학년 수준), 초등 3-4학년 수준, 초등 5-6학년 수준으로 3단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마찬가지로 3개 반(초등학력 인정반 5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중등과정 2개반, 학력인정보충반 1개반, 고등과정 1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반의 연령은 4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영락교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고자 설립하였는데, 복지관에서는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는 초등교육과정으로 읽기, 쓰기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단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존감 향상에 힘쓰며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영락학당’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글, 수학 기초교육의 내용으로 수준별 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50세 이상의 지역주민 70명이 한글지도 및 읽기, 쓰기 등의 5단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과목은 소망 · 배움 · 지혜의 나무, 초등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쨌든 다양하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노인 연령층이 많긴 하죠. 한 70대 중반? 근데 이제 점 점 저희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어쨌든 만 10년을 같이 했어요. 초기에는 검정고시 합격자도 있기도 했었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노인들이 정말, 현대의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사양길로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쨌든 되신 분들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문해교육이 당분간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진행이 되다보니까 연령층도 많이 낮아져서 40대까지도 있고, 한 40대인 분도 상담을 해보면 어쨌든 가정사라든지 깨우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깐 생활고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 기관이 40대도 많지 않지만 호리병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연령대는 보면 70은 다 못 되고 60대 후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처음 올 때는 저희가 지금 반이 다섯 개 반으로 나뉘어져서 그 반 안에는 선생님들 안에서는 병아리반이라고 하는 반이 있는데 그 반 같은 경우는 글을,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선그리기 색칠하기만 하는 반도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같이 교재에 따라가지고 뭐 자음과 모음도 같이 써보긴 하지만 방법적으로는 초등 문해긴 하지만 글을 접하게끔 하는 훈련부터 하고 있어요.” (김ㅇㅇ)

서귀포오석학교는 1967년 4월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승인을 받고 ‘서귀포 재건학교’로 개교하였다. 1969년 2월 1회 졸업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후 교실 확보의 어려움을 겪다가 1974년 5월 현 위치에 서귀포 재건학교 건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으로 본건물 및 추가부속건물을 완공하여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중학교 과정으로 운영되던 학교는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 중2과정을 따로 개설하여 1986년 제주도 교육위원회에 학교를 등록하면서 교명을 ‘한라학교’로 잠시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11월에는 ‘서귀포오석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였다. 중 ·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다가 한 학생이 초등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당시 중학교 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선생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한글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1989년에 초등 과정이 분리되어 개설되었다. 초등과정은 초급 검정

반을 분리하고 새날반을 분리하여 전체 3년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이후에 서귀포 오석학교는 초등 과정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갖춘 학교체제를 이루었다. 학습과목은 소망 · 배움 · 지혜의 나무, 초등국어 · 수학 · 사회 · 과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에는 컴퓨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필요가 증대되면서 컴퓨터 교실을 신설하였고 학생들에게 독서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같은 해 12월에 오석새마을문고까지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결혼 이주민여성 학습자가 찾아와서 한국의 정규수업 대신에 문해교육을 받고 검정에 도전하는 예도 생겼다. 생활패턴이 다양해지고 원거리에서 오가는 학습자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하루 4교시하던 수업을 2교시로 축소하면서 성인 학습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배려한 운영 방식에서 기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었다.

“연령대 다양한데 최근에 뭐 결혼 이주민들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 60, 70, 80대까지 이렇게 연령대가 이루어져 있고 제일 많은 층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 제일 많습시다. 수준이 뭐 문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그다음 중학수준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뭐 학생 분들이 수준차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냥 그 단계에 맞춰가지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별로 좀 다른데 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고 낮에는 주3회 해가지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 프로그램은 주3회 나머지 뭐 늘푸른 교실, 한글반, 새날반, 여울반, 중학교과정까지 하게 되면 나머지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두 시간. 오전에는 한 시간 반 정도. 그전에는 하루 40분 수업 아, 1교시 40분 수업 5분 휴식 해가지고 4교시까지 했었거든요. 재작년까지 근데 그게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시간표라가지고 최근에 다들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고 또 원거리에서도 많이 오고 굳이 4교시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줄었는데, 예 팬찮은 것 같아요.

효과는 뭐 편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같이 하는 게, 4교시 까지 밤 9시 50분에 끝나게 되는데 그 밤늦게 귀가하는 것도 위험하고 어르신들이. 이 4교시까지 했던 게 젊은 층을 위해 위주로 해서 짚었던 거라 어르신들이 이제 밤길에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도 있고 또 수업이 오래 하다보면 집중력도 많이 떨어

지는 것 같고... ” (오석 김ㅇㅇ)

다.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특성

1) 학습자 특성

제주지역의 문해교육기관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학습자들은 대부분 초등과정 3년에 머무르는 성인들이 대다수다. 만학도이다보니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있으며 교사의 가르침에 이해력이 부족하여 우선적으로 마음의 벽을 가리고 시작을 한다. 이제까지 보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부딪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비문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비문해자라는 것을 대중에게 밝히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교사에게 감히 질문하지도 못하고 그저 대답만 간신히 한다. 적극적인 학습자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험을 한다. 성인문해학습자들이 비문해자가 된 사유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성인문해학습자들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미군정과 한국전쟁 등 사회 경험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다. 하지만 가부장적이면서 권위주의적이고 가족위주의 가정환경은 결혼생활 중에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학습자 자신의 의지로 학습에 전념하며 가정을 돌보는 것은 그야말로 슈퍼우먼이라 하겠다. 이러한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교육에 대한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서나 드러내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경조사, 손자·손녀 돌보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없어 결석이 잦고 가족관계에서 소외되어 관심을 필요로 하며 잦은 결석으로 인해 학습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 쉽게 포기한다. 또한 기억력 감퇴로 반복 학습을 필요로 하며 사회에서 종종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감이 부족하다. 노년층이 대부분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며 다른 누구와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생활에 대한 활력, 삶에 대한 변화추구, 무리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 갱년기, 우울증 극복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참여하기도 한다. 학력을 취득하여 열등의식을 없애고 자신의 역량, 입지를 넓히고자 하지만 자주적인 학습동기저조로 중도 탈락자들이 많다.” (한ㅇㅇ)

또한 성인문해학습자들은 어떤 경로로 기관에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을 했다.

“홍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각 기관의 제주 시청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년 과정의 오일장신문과 계약을 맺어서 모집광고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서로 입에서 입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또한 각 거리 중심지 마다 현수막도 걸어서 매년 12월부터 1월말까지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기간인데, 1년에 한 번 모집을 하고 2월에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현수막, 홈페이지, 오일장 신문, 각 방송사의 자막 광고 협조, 그 중에서도 구전으로, 서로 소개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ㅇㅇ)

“다양하죠. 일단 그 본인이 공부를 배우고 싶다는 것 때문에 수소문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 친구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1년과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본인이 찾아왔다는 것도 어쩌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보러 왔을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자식한테 내가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식들이 알아봐서 찾아오는...” (김ㅇㅇ)

“음.. 이렇게 해서 뭐 현수막이라든지 신문, 전단지 그다음 교차로 신문 같은데 홍보하는 걸 보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 친구 분들 소개로 입소문으로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 가족들이 또, 요새 배워보라고 권유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방송은... 그 불규칙한데, 방송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와서 뭐 취재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럴 때 한 번. 옛날에 뭐 ‘삼촌 어드레 감수광?’ 뭐 그런 거라든지 ‘여섯시 내 고향’ 뭐 그런데 가끔 소개 한 적은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뭐 우리 행사했던 소식 같은 거 많이 하면 올리기도 하고 기자 분들도 귀감이 될 만한 사연이라든지 있으면 와서 취재해가서 올리기도 하고.” (오석 김ㅇㅇ)

성인문해교육기관에 학습자로 찾아오는 성인들 대부분은 가족을 비롯한 친구 등의 지인을 통한 권유로 방문하고 등록한 뒤 학습에 전념한다. 성인문해학습자들은 권유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가로 학업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2) 행 · 재정적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저학력 ·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 2015년 대상자 4만 여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해교육 기회의 확대는 지난해 정부 · 국회 등의 노력의 결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올해예산이 10억 증액되었다. 2006년 1,375백만 원, 2010년 2,000백만 원, 2014년 2,200백만 원, 2015년 3,250백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문해학습자들에게 글을 깨우치는 즐거움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5).

이에 제주지역의 성인문해교육기관에 확보된 예산을 한○○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제주지역에서의 성인문해교육은 1999년에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이 시작되어 2006년 국가차원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적 지원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문해교육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공모사업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2013년 평생교육 진흥조례 개정에 의한 성인문자해득교육지원 조항이 추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도예산서에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 항목으로 처음 기재되었다.” (한○○)

홍숙희(2014)에 따르면 제주 문해교육 예산 지원 현황은 다음의 <표 IV-2>와 같다. 예산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비는 최근 3년 간 지원 수준의 변동 폭이 미미하지만 지방비는 비정규학교지원 조례 제정 이후 비정규학교 지원을 통한 문해교육 지원 예산이 증가하면서 2013년에 들어 총 212백만

원이 지원되어 그 증가 폭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IV-2> 제주 문해교육 예산 지원 현황

구 분	기관명	국 비(백만원)				지 방 비(백만원)				비 교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1	동려평생학교	15	20	20	20	38.6	43	63		
2	서귀포오석학교	15	20	10		26	36	45		
3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1.02		
4	성산원광한글교실					0.9	0.9	0.87		
5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4.9	9.02	9.1		2.1	3.866	3.9		
6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2.87				0.861				
7	제주이주민센터			7.6				6.25		
8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8.44	10	8		74.282	63.5	91.765		
9	기타 기관	0	0	0	0	0	0	0	0	

※ 출처: 홍숙희(2014).

2.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의 문제점

가.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의 문제점

제주의 주요 성인문해교육기관들은 기관운영의 문제점으로 학습공간의 부족, 재정적 지원의 미흡,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능률적으로 이끌어갈 전담 직원의 확보가 어려운 점을 들었다. 주요 문해교육기관들은 학습공간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어려움으로 학습공간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환경에 있으며 또한 학습자가 늘어나면 그에 맞는 학습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성인문해학습자들 또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다. 성인학습자들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 희생해 온 사람들로서 이들 또한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못지않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학습할 권리가 있다. 재정적 지원 면에서 지방비 지

원 외에 자체 확보한 회원의 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회원들은 학교와 관련된 지인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자체 육성위원들이다. 한 기관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행이고 예산 지원이 없을 때는 기관 자체의 부담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문해교육 관련하여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해 줄 상근 전담 직원이 4개 기관을 제외하면 없는 상태로 기관 자체의 자원교사나 기관 대표 또는 복지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성인문해교육의 문제점은 첫째, 학습공간의 부족입니다. 14개 문해기관 중 학습공간은 자가 건물이 2개, 무상 임차가 5개, 유상 임차가 6개 기관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학습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학습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둘째,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이 부족하여 예산을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비가 6개 기관(동려, 오석, 영락, 장애인, 제주시다문화, 서귀포시다문화)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비는 4개 기관(동려, 오석, 장애인, 등하)만을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문해교육의 행정부분을 전담하는 유급직 직원 배치가 적습니다. 문해기관에 상주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유급 직원은 4개 기관(동려학교 1명, 오석학교 1명, 장애인학교 1명, 등하학교 1명)만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사회복지관) 또는 자원교사나 기관 대표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ㅇㅇ)

“회비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상당히 미흡했어요. 한 2~3년 전부터 조금 지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예산의 한 40%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교육청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동려 회원들의 자원교사를 포함한, 자원교사들도 전부 회원입니다. 150명 정도. 두 번째는 후원회원은 400여명 정도로 주변의 친인척, 친구, 친분관계가 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고 있고, 또 별도로 육성회원 30명이 조직되어 있어서 우리 학교 육성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내는 5,000원도 모으면 큰돈이 되는 거죠.” (한ㅇㅇ)

“그분들도 지금 우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것처럼 초등교육 가정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기관 ~지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강사에 대한 지원이라든 지, 이게 그 지금 현재는 일회성 사업이거든 예 1년 계약으로만 가는데 특히 1년 계약으로 해도 그 사업을 받아 내면은 다행인데 못 받아 낼 때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가 항상 해마다 떨어지는 마음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얼마가 예산이 배정될까 기다려지는데, 그나마 떨어지면 다행인데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감당을 한다거나 내지는.. ” (김ㅇㅇ)

“여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왜냐면 저기는 막 불안하거든요. 어쩔 때는 막 사업을 1월 달에 공고 냈다가 4월 달에 냈다가 이런 식으로 일률적이지가 않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뭔가 1월 달에 사업이 확확 빨리 움직였는데 올해에는 뭐 4월, 지금도 뭐 예산 확정된 통보도 못 받고. 저기는 거기대로 뭐 이렇게 뭐 하면은 예산 지원 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두고 여기는 여기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거기 바라보면서 뭐 손 놓고 있다가 거기 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석 김ㅇㅇ)

나. 문해교육의 저해요인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체득되어지는 저해요인으로 문해교육기관 간의 정보교류 미흡, 홍보 부족으로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예비성인문해학습자들의 접근성 부족, 정부기관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문해교육학습자들이 기관을 찾아오는 데는 홍보가 큰 역할을 한다. 각 기관별 홍보 방법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기관 주변에 걸리는 현수막,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방송사 등의 홍보가 그것이다.

“문해교육의 저해요인으로 첫째, 각 기관 자체의 프로그램만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문해기관 간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교류가 미흡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부족하며 둘째, 문해교육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민들이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합니다. 셋째, 문해교육이 곧

인권교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으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넷째, 문해교육기관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만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 있는 비문해자들이 문해교육을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찾아가는 문해교육 서비스 필요). 다섯째, 도교육청은 학교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어 성인문해교육에는 관심이 저조합니다.” (한○○)

<표 IV-3> 기관별 홍보 방법

기관	(사)동려평생학교	영락학당	오석학교
홍보방법	홈페이지, 오일장신문, 지인소개, 현수막, 방송사 자막,	홈페이지, 지인소개, 현수막, 교회주보	현수막, 지역신문, 전단지, 일간지, 지인소개, 방송사

문해교육학습자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인간의 권리를 논할 수 있다. 문해교육은 인권교육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돌다리라 하겠다. 제주 문해교육기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편중되어 있어 읍·면지역 예비문해교육학습자들은 기관 방문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은 성인문해교육학습자들의 또 다른 아픔으로 다가온다. 학습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은 자존감 저하로 연결되어진다. 자신의 희망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관심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다. 문해교육의 촉진요인

2007년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저학력 성인문해학습자들의 자존감 형성, 검정고시의 부적절성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초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초등학력인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제주에서 (사)동려평생학교가 초등학력인정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점은 문해교육

발전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한 2012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제주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종사자 전문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어서 현 문해교육 기관종사자들의 기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협의회가 창립되어 제주도내 12개 문해교육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문해교육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문해교육이 자원봉사 중심으로 전개되어 순수성을 갖고 교육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내 12개 문해교육기관이 참여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협회(2015년)가 창립되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과 기관장, 실무자, 자원교사, 학습자 등이 협력관계를 통해 문해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도 초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력인정체제가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문해교육교원 연수, 세미나 등 많은 교육이 시행되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설립되면 문해교육이 읍·면으로까지 확산되어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지금 우리가 청소년도 중요하고 장년도 중요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지 않습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글을 안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과거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눈 뜬 봉사의 생활을 해온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분들의 글을 깨우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문해의 목적 중 하나인데, 문자 해독하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기회에 있어서 이런 문해교육은 앞으로도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제주도 지역의 많은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초등부, 중등부가 있는데 이게 국가 법률로 평생교육법률로 기존 학교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단체에 지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육지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부, 중등부를 설치한 학교들이 다수 있어요. 제주도에 없는,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퇴임하신 선생님들이 이 문해교육에 입문해 보면 정말 정규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학습자들하고 학습

자들의 특성 부분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30~40년 교육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도 이 문해교육기관에 오면 아예 초보적인 자체에서부터 배우고 익숙해지고.....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은 첫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학교에서 현직 교사들이 성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또 초중고 선생님들이 전공이 초등은 초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많은 과목의 공부를 했었고 중등, 고등 역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상담을 비롯해서 그런 파트로서 교육과 연수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교사들은 외부에서 경험한 자들을, 성인들을 위해서 가르쳤던 교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 대신 학교의 시설을 활용하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연계시켜 볼만 하죠.” (한ㅇㅇ)

“아, 저희는 그냥 출석률만 보고, 저희도 이제 학력인증제로 가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학습자들이 사실 그 우리가 억지로 가면 갈 순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준비하고는 있어요. 3학년 3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근데 또 올해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학력인증제로 갈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출석률이 좋으면 수료.” (김ㅇㅇ)

라.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항

성인문해학습자들은 성인이면서 준고령자(만 50-64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수이다 보니 시력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 멀리 칠판에 판서한 글이 잘 안 보인다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교과서의 글자가 작다고 불평을 하면서 책읽기를 꺼려하기도 한다. 기관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학습자들의 성향에 맞춰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된 성인문해교육학습자들을 위한 교재가 있지만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은 기관 스스로 의견을 수렴하여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수방법은 일반적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교재내용을 익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 내용과 관련해서 교수 방법을 계획해야 하는데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기초 개념 위주의 학습은 교사중심의 교수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성인문해학습

자들은 교사의 주도적인 학습 형태는 선호하지만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두려워하고 있어서 여전히 교사 중심의 학습이 전개되고 있다. 성인문해학습자들은 교사 중심의 학습이 좀 더 쉬운 교수-학습이기를 바라지만 학습자는 이해력 부족으로 학습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

“교과서의 글자가 컸으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자꾸 얘기해 주면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죠. 또한 무엇보다 쉽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한ㅇㅇ)

성인문해학습 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밤 9시 20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도 모자라다며 더 많은 시간의 학습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주말과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특정 과목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학습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밤 9시 20분까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이 시간도 모자라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보충수업도 하고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여러 과목의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ㅇㅇ)

또한 성인문해학습자들은 정규과목 수업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색다른 체험이나 탐방의 경험이 부족하다.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체육활동, 율동, 스마트폰 교육, 소풍, 캠프 등 다양한 방면의 수업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체험 활동과 지역탐방 교육을 진행한다. 기관별 특별·체험활동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첫째, 교과 관련 프로그램은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동기를 강화시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사회 문화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표 IV-4> 기관별 특별 · 체험활동

내용	기관	(사)동려평생학교	영락학당	오석학교
특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수요일 교육문화원 강좌(서예, 민요, 가요, 컴퓨터, 실버댄스, 동화구연, 오카리나, 한자 등) • 교양강좌 • 호롱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여가프로그램 • 글쓰기 • 1:1 상담 • 발표회 • 도서관 견학 • 체육활동 •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록예술제 발표회 • 영화관람, • 교내백일장 • 전통문화예술교육 • 작은 음악회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학습(연 2회) • 문예한마당 • 체육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달 행사 참여 • 캠프 • 가을나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풍 • 수학여행

“(사)동려에는 교육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에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민요, 가요, 오카리나, 컴퓨터, 동화 구연, 스포츠댄스 등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부문의 10개 종목의 대해서 10개의 교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파트에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현장학습, 소풍, 체육대회, 문예한마당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수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경험의 세계를 더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교양강좌라고 해서 매달 1회 이상 각 파트 부분에 건강, 상식, 역사, 문화, 생태환경 등 각종 부문의 전문가를 모셔서 전 학생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강좌를 듣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ㅇㅇ)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술프로그램 가고 있고 한 달에 한번은 체육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리도록 하는데 일반프로그램이 해피스쿨이라고 해가지고 봉사 나가는 분도 계시지요. 한 달에 한번은 에어로빅 반에 가서 건강 체조 형식의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컴퓨터라든지 ATM같은 건 해드리는데 ATM도 뭐 교육 같은 경우는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손에 터치하는 방법도 핸드폰마다 다르고 서로가 상호, 당신들 끼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우리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있어먹지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해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

“수업 외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산행을 갖기도 하고 그다음 뭐 도외에 수학여행도 가고 그다음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열기도 하고. 또 상록예술제 해가지고 학생분들 작품 발표회 같은 것도 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석 김○○)

3. 제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읍·면지역의 비문해자들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이다. 제주 성인문해교육기관은 인구 밀집지역인 동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읍·면지역의 비문해자들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는 간절하지만 교통수단의 이용,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들이 프로그램 참여도를 낮추고 있다. 이에 동지역의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 문해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개인의 편리함과 접근 용이성을 극대화시키고 농한기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문해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문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통계청에서 파악되는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에 있는 비문해자를 직접 발굴해내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문해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문해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기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수단이 된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진 프로그램을 운영기관 자체 만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른 문해교육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보다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문해교육 외에 문해 백일장, 시화전, 문해학습자 체험한마당 등은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형성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

지만 네트워크 시대에 발맞추어 질적으로 향상된 문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습자 특성에 맞춘 교수 방법, 교재 개발이다. 어제의 화려한 정보가 오늘 버려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성인문해학습자들은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기관들이 학습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문해교원의 체계적이면서 정기적인 연수와 역량강화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재개발 등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해교육기관들의 공동 안내지 발간이다. 각 문해교육기관들의 협력으로 일상적 문해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안내지를 발간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생을 돌아보고 그것을 발판으로 학습자 스스로, 삶의 개선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문해교육기관과 문해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문해교육 발전을 위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문해교육기관과 문해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기관의 조직 운영, 교육과정, 학습자 특성과 요구, 프로그램 개발, 환경적 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성인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2015년 3월 문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문해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에서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등 체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목적 아래 제주특별자치도문해교육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이 단체가 교육소외계층 성인문해학습자들이 당당한 삶을 영위하도록 문해학습 터전을 형성하고 인권으로서의 배울 권리와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하여 제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해교육을 읍·면지역의 비문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문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며 자치단체 주무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확인 검토하여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해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문해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학습자들에

게 문해 백일장, 시화전, 문해학습자 체험한마당을 개최하여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문해교육기관의 운영자, 실무자, 문해교원에게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수는 문해교육의 정책개발, 실무자 역량 강화, 교재개발 및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전문성 확보, 상담기법, 교수방법 등을 필요로 한다. 문해교육기관들이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안내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면 좋겠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학습자들이 문해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〇〇)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에 분포해 있는 주요 성인문해교육기관의 기관장 또는 직원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첫째, 연구 문제1에 대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의 문해교육은 국가 차원의 문해교육이 이루어지는 해방 이후에 성인교육협의회와 문행 퇴치 사업이 전개되면서 출발하였다. 1957년 이후 성인문해교육은 민간차원의 대중계몽운동을 비롯하여 직업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문해교육이 이루어졌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1975년 당시 순수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사회의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해교육을 시작하였다. 서귀포지역은 1976년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늦깎이 학생인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한글을 깨쳐 자존감을 높이고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제주시 지역의 (사)동려평생학교,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지역의 오석학교를 선정하여 문해교육의 목적, 학습 과목, 학습 기간에 대하여 파악하였으며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특성으로 학습자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해 파악하였다.

둘째, 연구 문제2에 대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의 문제점은 학습 공간의 부족, 재정적 지원의 미흡,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능률적으로 이끌어갈 전담 직원의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운영의 저해요인으로는 문해교육기관 간의 정보교류 미흡,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예비성인문해학습자들의 접근성 부족, 정부기관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들었다. 문해교육의 촉진요인으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초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초등학력인정제도의 도입,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제주지역 문해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종사자 전문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문해교육협의회의 출범으로 제주도내 성인문해교육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으로는 성인문해학습자들에게 적절한 학습교재의 개발과 교수-학습 방안, 반복학습의 기회 제공, 정규과목 수업 이외의 특별·체험 활동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 문제3에 대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 문해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개인의 편리함과 접근 용이성을 극대화시키고 농한기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맞춤형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통계를 활용한 비문해자의 발굴이 요구된다. 문해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다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에게 자신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또한 문해교원에게 체계적이면서 정기적인 연수와 역량강화 교육, 학습자 중심의 교재개발 등으로 성인문해학습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해교육기관들의 공동안내지는 학습자 스스로, 삶의 개선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인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문해교육기관과 문해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5년 3월 문해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해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단체가 교육소외계층 성인문해학습자들이 당당한 삶을 영위하도록 문해학습 터전을 형성하고, 인권으로서의 배울 권리와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하여 제주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 결론

제주 문해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성인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문해학습자들은 적절한 학습교재의 개발과 교수-학습 방안, 반복학습의 기회 제공, 정규과목 수업 이외의 특별·체험 활동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 실현을 위해 문해교육기관 간의 정보교류 미흡, 홍보 부족으로 인한 문해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예비성인문해학습자들의 접근성 부족, 정부기관의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저해 요인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력인정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의 확대, 제주지역 문해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종사자 전문연수 등을 제주 전 지역의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2015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문해교육협의회의 제주도내 성인문해교육기관 네트워크 협력 추진이 제주 성인문해교육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자는 제주 성인문해교육 발전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성인문해교육 지원 예산은 2014년에 비정규학교 성인문해교육 지원 항목으로 처음 게재되어 일부 기관에만 지원되고 있으므로 타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의 제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 읍·면지역의 비문해자들은 문해교육기관을 찾아오기 위해서 신체적 활동의 불편함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과 거리상의 제약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한 문해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성인문해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성인의 눈높이와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교재의 개발, 교사 주도의 일방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해교원들의 재교육과 연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과 정기적인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기관들이 협력하여 보다 발전된 문해교육사업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타 기관과의 소통으로 새로운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주 성인 문해교육기관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문해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3.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통해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3개 성인문해교육기관의 기관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제한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보다 더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학습자 특성을 주요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른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공은화(2007). 성인 문해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 논문.
- 교육개발원(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조사 연구. CR2002-49.
- 구은미(2010). 다문화 가정의 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 김금선(2014). 성인후기 비문해 여성의 문해교육 참여와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2008). 성인 학습자의 문해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강원도 삼척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일(2009).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준(2005). 비문해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한국의 문해교육. 서울: 문음사.
- 김중천(2006). 한국의 성인 문해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관한 연구: 충청지역 성인 문해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4). 성인학습자의 문해학습 참여를 통한 생애경험과 인식전환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2013).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참여자의 자아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종철(2007). 여성노인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형태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한교육협의회(1964). 교육연감. 서울: 문음사
- 문춘단(2013). 문해교육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2009). 성인학습자의 기초문해력 조사 연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중(2009). 성인문해교육의 정책동향. 문해교육 이젠 달라져야 한다. 전국 문

- 교육심포지엄, 64, 77-81.
- _____ (2014).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정책.
- 배천웅(1989). 성인 문해교육의 방향. 한국교육, 16(1), 210-227.
- 변중임(2006).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서숙영(2007). 성인 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 사례연구: A시 시민대학 문해교육 학습자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57-92.
- 신미식(2006). 한국 여성노인의 문해교육 현황과 정책.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 논문. 261-283.
- 양병찬(2004). 학습권 관점에서 본 성인문해교육 지원 정책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0(4), 209, 215-216.
- 양수명(2009). 노인학습자의 문해교육 참여특성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태철(1998). 성인학습의 전 생애 발달 이론적 정당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효창 외(2003). 농촌 노인들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국어문학, 16, 83-109.
- 윤복남(1990). 한국 문해교육의 사회사적 고찰.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운성(2000). 문화와 성인학습의 생활화. *Andragogy Today*, 3(1). 성인교육학회.
- 이영호(2005).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국제적 보급이 한국 평생교육에 미친 영향. 한국비교교육학회, 15(3), 219-247.
- 이지혜(2003). 학습사회에서 성인문해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9(3), 57-74.
- _____ (2006). 문해교육기관과 성인학습자의 이해. 국민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 교육 활성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11). 문해교육에서 ‘문해됨’의 의미- 문해학습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7(3), 1-24.
- 이현순(2003). 여성 성인 문해교육의 발전방안 연구: 여성사회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수(2001). 우리나라 성인문해 실태조사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 한국 성인의

- 문해 실태와 발전과제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박현정·이세정(2003). 한국성인의 문해실태와 OECD 국제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3(2), 193-219.
- 정나현(2014). 비문해 ‘어머니’의 문해교육 이전 학습경험의 변환.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4 사업보고서.
- 제주시교육지원청(2013). 2013년 다문화교육 교원 직무연수.
- 조미경(2012). 유네스코의 비판적 성인문해교육 변천 과정 및 동향 분석: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2002). 무학력자의 성인문해학습과정에 관한 생애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일선(2003). 노인 무학력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만수노인대학 한글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제만(1959). 문맹퇴치교육에 관하여. 문교월보, 149.
- 한국교육개발원(2006). 국민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교육 활성화.
- _____ (1989), 한국인의 문해실태 조사연구.
- _____ (1990), 한국의 문해실태와 문해교육.
- 한국문해교육협회(2005). 한국의 문해교육. 서울: 문음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 문해 정보화교육의 쟁점과 과제. 문해 정보화 교육기관 관계장 워크숍, 9.
- 한준상(2014). 미래 한국 평생교육 정책의 비전. 한국평생교육, 1(1), 151-180.
- 황중건(1990). 문해 운동의 역사와 전망. 문해교육연구(1). 한국문해교육협회.
- 황중건·윤복남·이지혜(1990). 한국문해운동의 역사와 전망. 문해교육연구, 145-176.
- 한혜정(2014). 성인학습자의 문해교육참여를 통한 성장과 변화연구: ‘Y시민학교’ 문해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준(2008). 문해교육 법제화와 그 의미. 경상남도 평생학습 연구센터
- 홍숙희(2014). 제주지역 문해교육 기관 운영 현황 조사 연구.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히고 코우세이(2008). 황중건의 사회교육 이론과 실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고 사이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nile.or.kr/contents/>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lifelongedu.go.kr>

푸른시민연대 <http://www.epurun.org/board>

뉴스제주 <http://www.newsjeju.net>

블로그 <http://shockwave100.산재교.com/322>

(사)동려평생학교 <http://www.dongryeo.org/>

서귀포오석학교 <http://www.osuk.co.kr/m0106>

서귀포 향토문화백과. 「디지털 서귀포문화대전」.

_____ <http://seogwipo.grandculture.net/>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http://www.youngwel.org/>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news_center/sub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2010). <http://www.jile.or.kr/>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nso.go.kr>

헤드라인 <http://www.headlinejeju.co.kr>

고령화 현황보기 <http://sgis.kostat.go.kr/publicsmode/>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in Jeju and an Activation Plan**

Oh, Young-ok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Lee, In-hoi

Literacy means communication with others, not simply deciphering letters. The majority of highly educated persons may have no difficulty with communication in conversation. It is therefore hard for them to understand illiterates' distress. Illiterates are reluctant to cooperate with others and try to avoid learning.

The UN general meeting in 2001 designated the decade of 2003-2012 as the UN Literacy Decade and has defined that literacy is a key element in learning the fundamental living functions for all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and that basic educ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for effective social and economic participation in the 21st centur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deprived of the right to education, as specifi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an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society and may ultimately fail to decide on their fate for themselves.

Literacy is a fundamental means for self-realiz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It is not only the basis for every type of education but also the foundation

for human growth,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realization of democratic values as the cornerstone for human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in Jeju who had failed to receive regular school education and to develop a plan for activating literacy education so that learners could be given effective literacy education.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concerning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in South Korea was performed and a survey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directors and employees of three principal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s in Jeju. The data were analyzed in this study.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First, adult learners receiving literacy education at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s for adults required development of good learning materials and teaching-learning plans and wanted to be given chances for repetitive learning and special and experiential activities other than the classes for regular subjects. To meet these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obstacles, including poor information exchange among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s, poor awareness of literacy education due to limited publicity, poor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poor accessibility of adult literacy learners-to-be, and limited interest of government agencies in literacy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ursue systemat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o that expanding the institutions with the elementary education recognition system, building a system of cooperation among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Institute to improve the ability of employees at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s in Jeju, providing information and chances for lifelong education, expanding special training for employees to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out Jeju, and pursuing networking of literacy education institutions for

adults in Jeju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iteracy Education Association can serve to facilitate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부록 1】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학생 오영옥입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지역의 문해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문해교육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문해교육 발전과 문해학습 지도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설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의 분석결과는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도교수 : 이 인 회 교수

석사과정 : 오 영 옥

연 락 처 : 010-3169-9116

이 메 일 : guslezip@hanmail.net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5. 귀하의 문해교육 경력은 몇 년입니까?
6. 이 기관에서 당신의 직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에 대한 사항>

7.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 문해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9. 문해교육의 과목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0. 제주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 성인문해교육의 실태 및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항>

11. 제주지역 문해교육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12. 제주지역 문해교육기관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13. 학습자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14. 학습자들의 요구는 어떤 것입니까?
15.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반영은 어떠합니까?

<제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

16. 제주지역 문해교육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현황은 어떠합니까?
17. 제주 문해교육기관의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8. 제주 문해교육의 저해요인은 무엇입니까?
19. 제주 문해교육의 촉진요인은 무엇입니까?
20. 제주 문해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